

담양 죽녹원, 관광 100선 4회 연속 선정

작년 62만5천여명 찾아...청량감·편안함 선사 담양대나무축제 무대·담양음식테마거리 조화

담양 죽녹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이름을 올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높은 인기와 명성을 재차 증명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이 꼭 가볼 만한 대표 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5회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62만 5천여 명이 찾은 담양 죽녹원은 청량감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대숲 산책로와 함께 시가문화촌, 한옥숙박, 죽로차 다도체험 및 시서화 풍류체험, 장인각, 봉황루 전

망대, 추월당 한옥카페, 이이남아트센터 등이 조성돼 휴식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에 빛나는 '담양대나무축제'가 열리는 무대이기도 하며 '2017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담양음식테마거리'와 조화를 이뤄 남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방문객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선별한 198개소를 대상으로 1차~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학계, 여행업계, 여행기자·작가)가 심사에 참여했으며 이동통신사, 길도우미(네비게이션), 누리소통망(SNS)의 거대자료(빅데이터) 등을 평가에 활용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지속되고 있어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죽녹원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

광지가 되었으면 한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국내외의 관광객이 자유롭게 관광명소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홍수피해 한우농가 축사환풍기 시설 교체 지원

사업비 8천만원 투입 환풍기 200대 설치

구례군이 지난 해 홍수피해로 고장난 축사환풍기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구례군에 소재한 한우농가들 중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과 축분 건조를 위해 설치한 축사환풍기가 지난 해 수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농가들이 있어 구례군은 사업비 8천만원 투입하여 200대의 환풍기를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축사에 설치되도록 추진한다.

침수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는 2월 10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군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피해정도 및 축사규모를 조사하고, 한우농가에 사업량과 사업비를 배정하게 된다.

대당 사업비 40만원이며, 보조7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하게 된다. 농가는 축사시설에 적합한 환풍기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해 수해로 구례군에서는 45 한우농가에서 572두가 폐사, 유실되었고, 213두가 긴급도축 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구례군은 피해복구를 위해 한우임식자금으로 녹색축산육성자금 11억9천만원을 융자했으며, 치료에 필요한 동물약품과 공수의사를 지원하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해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가 빠른 시일 이내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5명 이상 모임 금지' 계속 유지...설 특별방역 대책 추진

화순군은 1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자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역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화순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2.11~2.14)에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제8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순군은 지역 사회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대비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를 포함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청정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 가동

곡성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섰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도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에서는 전체 272개 마을 중 150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마다 3년 동안 900만원씩 지원한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곡성군은 각 마을별로 추진단을 설치하고, 실무회의 등을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곡성=양혜영기자

장성군 '양방향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확대 본청·읍·면에 이어 사업소 등 4개소...비대면 회의·교육 등에 활용

장성군이 양방향 영상회의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군은 기존 본청과 읍·면 단위까지 연결되어 있던 시스템에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 4개소를 추가했다. 이로써 장성군 산하의 주요 기관이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그간 장성군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재해 등 각종 긴급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비대면 회의' 진행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군정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2020년 장성군의 영상시스템 사용 실적은 총 545건으로, 직전해(2019년 275건)에 비해 약 198% 가량 늘었다.

군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방향 영상회의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소 등 4개소에 대한 장비 설치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매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비롯해, 각종 회의 및 교육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2011년 전남 최초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또 모든 마을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완료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했으며, 마을방울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스마트 양방향 재난구호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각 가정과 소방서, 인근 마을을 연결했다.

기동취재본부

나주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접수

나주시는 농촌 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인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2월 25일까지 신청받는다. 예산 신청 분야는 생산기반/농촌·

공동체/식량작물/원예작물·유통/축산/식품·친환경/농생명산업/임업 등 8개 분야 129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등으로 분야별 지원 자격과 요건 확인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사업성 검토 등 자체심사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을 신청한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